

# 은폐·방관이 낳은 상처...“친구들이 분노하고 소리쳐라”

## 방관이 부르는 비극 **학폭**

### <중> 침묵의 카르텔 깨야

10년 전 정부는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꽃과도 같은 학생들의 죽음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학교폭력을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했다. 그로부터 꼭 10년이 지났지만 학교폭력 골레에 갇힌 채 들리지 않는 신음을 내뿜는 학생들도 여전히 있다. 최근엔 고교생이 이같은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특히 친구가 폭력을 당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나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별로 친하지 않다는 무관심, 도와줘야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포자기의 심정 등이 뒤섞이면서 나서지 않고 방관한 학생들도 여럿했다.

목적 학생 10명중 3명 ‘모른 척’ 학생은 방관, 학교는 덮기 급급 학부모 침묵하는 태도 바뀌야 모두가 적극 고발자 돼야 예방

학교폭력 대부분이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 학교, 교실에서 벌어지는 만큼 피해자 주변의 많은 학생들이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고발자가 돼 목소리를 내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학생뿐 아니라 드러난 학교폭력을 쉬쉬하거나 축소하려는 학교, 또래 친구들의 피해사실을 듣고도 내 자식이 아니라며 눈과 귀를 닫는 학부모들, 이들이 ‘침묵’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10명 중 3명, 여전한 방관자들=비영리공익법인

인 푸른나무재단이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에 대한 방관자들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재단이 지난해 말 전국 학생(초교 2학년~고교 2학년) 6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 전국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응답자 중 26.7%가 ‘모른 척 했다’고 답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지만 침묵한 한 학생들은 ‘내가 피해를 입을까 봐’, ‘망설이니까’, ‘자각하지 못해서’ 등을 방관한 이유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주변인들의 학교폭력 방관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꼽고 있다. ‘신고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 ‘나도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보복 우려’, ‘신고 의지할 교사가 없어 신고하기가 망설여진다’는 게 방관자들의 침묵 이유라는 것이다.

황한이(사학교폭력가축협의회 광주지부 센터장)은 “학교폭력 당사자건, 주변 학생이건 처음 ‘신고’를 듣고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책임감 없는 교사는 대중 불리 가해자에게 사과를 시

켜 사건을 잠재우기 바쁘고,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낙인 찍힌 학생만 고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래 학생들이 주변에 알릴 생각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광주일보가 만난 광주지역 중학생들도 ‘신고 의지할 교사 부재’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광주시 광산구 중학교 2학년 A양은 “학교폭력을 직접 봤지만, 어떤 선생님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고 했다. A양은 “친분이 없는데 괜히 내가 오해를 사거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B양은 “학생부장 선생님은 친분이 없고 어려워, 담임선생님께 알린 적이 있다. 담임 선생님과 친밀감이 없었다면 아무 말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 아이도 아닌데 괜히 나섰다”=피해자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침묵하는 학부모들의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1년 학교폭력에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권승민 군의 어머니 임지영씨는 “자

녀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듣고도 ‘내 자식만 아니면 되지’, ‘괜히 내 아이가 피해를 볼까’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들도 학교폭력의 가해자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한 고교생의 극단적 선택이 성적 탓이 아닌 학교폭력이 원인으로 밝혀진 것도 뒤늦게나마 “이렇게 덮혀서는 안된다”는 친구·학부모의 움직임이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조금만 더 일찍 나섰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나마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친구·학부모가 알리면서 침묵의 균열이 깨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피해 고교생 가족도 “아이가 숨지기 하루 전날만이라도 학교폭력 사실을 누군가에게 들었다면 아이를 평생 못보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며 안타까워했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의 구성원들인 학생·학부모들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때 동시에, 교사에게 알리면서 어떠한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학동 참사 합동분향소 마지막 참배 한달여 간 광주 동구청 앞 마당에 설치된 학동 철거 건물 붕괴참사 합동분향소가 12일을 끝으로 운영을 종료했다. 유가족들이 영정 앞에서 고인에 대한 마지막 추모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동구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사업’ 선정 168억 들여 악취 저감 시설 등 설치

광주 동구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전 강화와 운영 효율화를 위해 추진한 환경부 주관 ‘스마트 하수관로 관리체계 구축 선도사업(하수 악취관리)’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 하수처리장 ▲스마트 하수관로(도시집수 대응-하수 악취관리) ▲하수도 자산관리 등 실시간 악취 저감을 통한 주민 불편 해소와 열악한 하수도 작업환경에 의한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환경부에서 올해 처음 추진하는 한국판 그린뉴딜 사업 중 하나다.

동구는 오는 2023년까지 16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 여건에 맞는 하수도 악취 개선을 위한 맞춤형 시설·장비 설치 ▲하수 악취 측정 및 데이터 전송체계 구축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자동 제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동안 동구는 하수도 구조가 악취 발생을 유발

할 수 있는 합류식으로 설치돼 있어 매년 악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아 2016년부터 예산을 투입해 저감 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정된 사업비 내에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동구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악취등급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규모 정화조까지 악취 저감 시설을 확대·설치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전남농산어촌 유학 2기 유학생 132명 신청

### 서울서만 120명...내달 2차 신청

코로나19 시대 대안교육으로 주목받는 전남농산어촌 유학 2기 프로그램에 서울·경기·광주지역 학생 132명이 참여를 희망했다. 지역 별로는 서울 120명·경기 3명·광주 9명이다.

서울 지역 희망 학생의 경우 가족체류형 96명·농가홈스테이형 12명·센터형 12명, 경기는 가족체류형 2명·농가홈스테이형 1명, 광주는 가족체류형 5명·농가홈스테이형 4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1기(올 1학기) 전남 농산어촌 유학 프

로그램에 참여했던 77명 중 58명이 당초 유학 기간을 연장해 2학기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2학기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중학생은 190명이다.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은 도 교육청이 농산어촌 학교와 마을을 살리기 위해 도시 학생들을 전학시키는 교육 시작이다.

도 교육청은 오는 8월4일까지 신청인과 전남 지역 학교 간 매칭을 완료한 뒤 같은 달 5일부터 11일까지 2기 2차 신청을 받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 김범태 신임 관리소장 취임

김범태(사진) 전 한국투명성기구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가 12일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제14대 관리소장에 취임했다.

그동안 보훈처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했던 5·18묘지 관리소장직은 5월 단체의 요청에 따라 10년만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경력개발형 직위로 변경됐다.

김범태 관리소장은 광주민중항쟁 당시 시민협상 대표로 참여한 5·18민주유공자로서 고흥 출신으로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정치학 박사, 조선대학교 초빙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이날 5·18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김범태 관리소장은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의 계승·발전은 물론 사랑받고 열린 국립묘지로 바꾸어 나가는데 신명을 바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업종 전환 원하는 소상공인

### 광주 북구 최대 150만원 지원

광주시 북구가 업종전환이나 추가를 희망하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재도약 디딤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매출하락 등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별 최대 150만원의 홍보물 제작비(간판 등)와 희망자에 한해 종합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북구 소재 소상공인이다.

사업에 관심 있는 소상공인은 북구청 누리집을 참고해 오는 30일까지 민생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북구는 오는 8월 중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20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민생경제과 자영업지원센터(062-410-6682)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첨단우리병원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상장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